한국미술사연구소
실크로드 조사 30주년 학술대회

“골굴 법당굴 ‘법화사상’ 토대로 조성”

주제 : 골굴석굴과 돈황 285굴

문명대 동국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문명대 명예교수는… 1941년 출생으로 경북대 사범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굴암 불상 조각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중 울산 천전리, 대곡리 선사 암각화를 발견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는 러시아 연해주 발해사원지 발굴, 파키스탄 탁실라 간다라 유적 발굴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발굴 성과를 냈다. 정년퇴임한 2006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을 맡으며, 왕성한 연구 ·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조각사〉〈한국의 불화〉〈한국불교미술사〉 등 50여 편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다.

돈황 285굴은 서위(西魏) 문제(文帝) 대통(大統) 4년인 538년에 조성되었다는 명문이 남아있는 유일한 고대석굴이어서 돈황석굴의 편년과 성격 연구에 가장 중요한 석굴이다.

경주 골굴석굴은 이런 6세기 중엽 전후의 석굴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황 285굴의 구조 및 도상들과 비교 고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골굴석굴 법당굴의 구조 형식

골굴석굴의 법당굴 구조형식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다. 석굴구조는 인도나 중국석굴의 차이티야 석굴을 다소 간명하게 변모시킨 것이 특징이다.

전실은 평면이 4각형이지만 입구가 정면에 없고 측면에 있으며 굴 벽면은 개착하여 조성한 석실의 석벽이지만 지붕은 목조로 가구한 것이 실크로드석굴인 돈황 285굴과는 다른 것이다. 현 지붕과 벽면은 근래에 수지로 새로 가구하여 원모습은 알아볼 수 없다.

주실은 완전 석굴형식으로 평면이 긴 장방형이어서 아쟌타 19 · 26굴에 가깝지만 정4각형의 돈황285굴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인도 후기 차이티야 석굴의 후진에 있는 탑상이 없고 돈황285굴의 후진의 감실에 새겨진 본존불도 없어 단순화된 구조인 것이 특징이다.

골굴 법당굴에는 각 4벽면이나 탑주 4면에 2층이나 3층으로 구성된 충만한 부조상이 간략화 되어 주실 좌우에 부조상 1구씩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원래 더 많은 불상이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도의 아잔타 26 · 19굴이나 운강 6굴의 화려하고 충만한 조각은 변모되어 보다 간명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골굴 법당굴은 챠이티야굴인 예배굴이지만 돈황 285굴은 비하라굴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난다. 다만 골굴 법당굴은 감실형 승방굴을 개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승방굴들을 바로 옆 절벽에 마련하였는데 비해 돈황 285굴은 좌우벽면에 4개씩의 감실을 마련하였으나 승방굴로 보기는 어렵고 탑 · 상을 안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돈황석굴 285굴 구조 형식

돈황 285굴의 석굴구조는 전실(前室)과 주실(主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실은 파손이 심하지만 직사각형인 장방형(長方形)이고 주실은 거의 정사각형인 방형(方形 ; 6.4m×5.9m, 굴고 4.3m)의 굴실(窟室)이다. 즉 주실은 좌우 폭이 6.4m이고 길이(동 · 서)가 폭보다 약간(50cm) 작은 5.9m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른바 방형석굴이다.

굴실 바닥인 굴 평면 중심에 30cm 높이의 사각형 토단(2.60×2.70cm)이 마련되어 있다. 이 토단에는 불상이나 탑을 안치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의식용단이거나 설법용 또는 두 용도 모두 해당하는 단으로 추정된다.

> **경주 골굴석굴 6세기 중엽 조성**
> **돈황 285굴과 비교고찰 의미 커**
> **골굴 주실은 장방 · 돈황은 정방형**
> **골굴은 벽화 없이 조각으로 장엄**
> **사상도 유가유식 · 법화로 차이 有**

굴실의 4벽은 모두 강바닥의 흙으로 마감한 후 채색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주실의 정면벽인 서벽(西壁)에는 3개의 감실이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대감실(4.0m× 1.0m)은 큼직한 크기인데 정면 본존 미륵불의상과 좌우 협시보살(대묘상, 법림) 등 삼존상이 배치되어 있다. 좌우의 감실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선정인의 승형(僧形)의 나한상이 좌정하고 있어서 가섭, 아난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유가유식파의 창시자인 무착과 세친상일 가능성이 더 농후한 편이다.

유가유식파의 도상성격

돈황 285굴의 도상들은 유가유식파의 주존인 미륵과 미륵삼존, 유가유식파를 세운 미륵 · 무착 · 세친의 3존상, 그리고 미륵 3존을 지극 정성으로 존숭하고 호위하는 인도의 재래신과 실크로드와 중국의 신들, 아미타계 도상과 법화계 도상들의 조합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조합은 인도의 유가유식사상이 중국에 수용되면서 중국적 유가유식사상으로 변화화는 과정 이른바 지론종(地論宗), 섭론종(攝論宗), 법상종(法相宗)으로 승화되면서 도출해낸 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돈황 285굴의 도상은 인도 유가유식사상이 중국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가령 남북조시대의 북조에서 수용, 변화된 지론종(地論宗) 계열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론종은 보리유지(菩提流支)가 창시하고 늑나마리(勒那摩提), 불타선다(佛陀扇多) 등이 발전시킨 학파이다. 보리유지는 이른바 중국 유가유식파의 종조(宗祖)격이 되며 이들 인도의 유가유식파는 실크로드 상에 그들의 신앙과 도상을 유행시켰고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돈황 285굴이라 할 수 있다.

골굴석굴과 돈황 285굴 비교

돈황 285굴과 골굴석굴(법당굴)의 석굴구조는 동일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첫째, 돈황 185굴은 전실이 사각형으로 생각되지만 파괴가 심하여 잘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골굴 법당굴은 전실은 직사각형인데 벽은 석벽이지만 지붕은 목조로 생각된다.

둘째, 주실의 구조이다. 돈황 185굴의 주실 구조는 거의 정사각형(6.4×5.9m)에 가까운 방형인데 비하여 골굴 법당굴은 장방형이어서 다소 다른 편이다.

셋째, 주실의 장식이다. 돈황 285굴은 정벽면에 감실 3기가 있는데 안에는 미륵 3존불과 나한상 2존이 봉안되어 있고, 좌우벽인 북벽과 남벽에는 4기의 감실이 배치되었는데 안에는 탑 또는 불상이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골굴 법당굴은 좌우에 불상이 배치되었던 것은 확인되나 입구의 정면 벽인 후진에는 감실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편이다.

넷째, 천정은 돈황 285굴의 천정은 복두천정(伏斗天井)인데 비해 골굴 법당굴은 평천정이어서 대조된다.

두 석굴의 불화와 도상을 비교하면 이와 같다. 첫째, 돈황 285굴은 정면 벽인 서벽에 감실을 배치하여 감실 안에 본존인 미륵3존불과 좌우에 나한상 2구를 배치하였고 좌우벽면 감실 4기에 각각 탑이나 불상이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골굴 법당굴은 좌우벽에 불상을 봉안하였으나 정면벽에는 감실이나 불상이 봉안되지 않아 다소 다른 편이다.

둘째, 돈황 285굴은 4벽면과 천정 등에 전면적으로 벽화가 그려져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골굴 법당굴에는 벽화가 그려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장엄한 분위기는 서로 다른 것 같다.

셋째, 돈황 185굴은 주존불(미륵불)이 정벽 감실 안에 봉안되어 있고 본존 격의 마애불이 별도로 없지만 골굴 법당굴은 주존불 격인 불상이 굴실 안에 봉안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멸실되어 뚜렷하지 않고, 그 대신 바로 옆 암면에 거대한 마애불이 주존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이다.

돈황 285굴은 주존불이 미륵삼존불(미륵불상, 대묘상, 법림보살)이고 좌우 소감실 상이 유가유식 창시자인 무착과 세친일 가능성이 높아 이 굴은 유가유식 사상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중국의 유가유식파는 섭론종 계통이어서 이 사상에 의하여 285굴이 조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골굴석굴은 초창기에는 유가유식 사상이 주 신앙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잘 알 수 없고 통일신라시대는 법화경 사상이 주 신앙인 것으로 생각된다. 없어진 상들이 미륵불 계통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골굴석굴의 조형사상을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법화경 사상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골굴석굴과 돈황 285굴은 구조와 도상 특징 그리고 조형 사상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석굴 구조는 전실과 주실로 구성된 구조는 같지만 골굴 법당굴은 주실이 장방형이나 돈황 285굴은 거의 정방형으로 거의 유사하며, 천정은 골굴법당 평천장이나 285굴은 말을 엎은 듯한 복두천정(伏斗天井)이어서 다른 점이다.

돈황 285굴은 정벽 감실에 미륵삼존불을 주존으로 봉안했으나 골굴 법당굴은 좌우에 불상이 봉안되었다. 정벽에 주존불은 확인할 수 없고 통일신라 마애석가불이 옆 벽면에 마련되어 주존불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돈황 285굴의 4벽과 천정은 전체적으로 벽화로 채색되어 있으나 골굴 법당굴은 벽화는 없이 조각으로만 장엄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돈황 285굴은 창건 시기에는 유가유식사상에 의하여 조성되었는데 여기에 법화사상과 아미타사상이 가미되어 점차 법화와 아미타 신앙으로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골굴석굴은 초창기 때는 유가유식사상이 주신앙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통일신라때는 법화사상이 주신앙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2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실크로드 학술조사 30주년을 기념해 ‘골굴석굴과 실크로드 석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1989년 문명대, 조영록, 목정배 등은 조사단을 구성하고 35일 간 한국 최초 실크로드 조사를 진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골굴석굴과 돈황 285굴의 석굴’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문 교수의 강연을 발췌 · 정리해 게재한다. **정리=신성민 기자**

2020년 제 35회 불이상 공고

불이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끌어 갈 불교계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상부문

○ 연구 분야 |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장차 한국 불교학을 선도할 인재
○ 실천 분야 | 신행과 포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각 수상자는 상장과 2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후보자 자격

○ 연구 분야 | 박사 학위 취득 이후, 연구원, 시간 강사, 연구 교수, 강의 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최근 수년 동안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와 업적을 보여온 자.
○ 실천 분야 |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인 혹은 불교 단체

구비서류 : 분야별 추천서

○ 추천서 양식은 이메일로 요청 가능합니다. (burisince1986@gmail.com)
○ 후보자는 분야별로 한 분만 추천 가능합니다.
○ 추천서 이외의 업적 증빙자료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추천 받은 후보자 분께 별도로 제출 요청 연락을 드립니다.

추천서 접수

○ 접수 기한 | 2020년 2월 3일(월)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불이상 심사위원회
| 이메일 burisince1986@gmail.com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발 표 | 2020년 6월
○ 시 상 | 2020년 7월

기 타

○ 기 타 | 문의는 불이상 심사위원회(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不二會